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을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822호 현대불교 21  
2011년 2월 9일(음 1월 7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 무심의 마음 한생각이 무주상보시가 됩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충족하게 담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릇 아닌 그릇이 있다면 담아질 것이고 그릇이 없다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정신계로 치닫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좀더 내면세계를 숭상하고 정립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계시면 이 세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상대성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주 전체가 인간의 마음에 직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사바세계의 이 생활 자체가 바로 우리 근본에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풀 한 포기도 빼놓지 않고 서로가 공생 공식 하며 공용 공체로 조화를 이루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불(佛)이라고 하며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교(敎)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서 이어 가는 바 없이 이어 가며 꽃과 꽃, 나무와 사람끼리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먹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전통식으로 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 가면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의 물질적인 문제 50%는 깨지고 부셔지고 변하고 화하고 죽고 살고 이렇게, 사대로 왔다가 사대로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본래자성불이라는 것은, 본래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갈 것도 없는 그 자체의 근본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그런 데서는 변함 없는 영혼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본래자성불이기에 갈 것도 올 것도, 또 미래로 갈 것도 과거로부터 온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나 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살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수박씨를 울퉁에 심었더니 수박 싹이 나서 수박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박이 과거의 씨를 찾으러, 자기 씨를 찾으러 그 심은 자리로 가야만 올겠습니까? 자기는 이미 씨가 화해서 싹이 되고 싹이 화해서 열매가 열렸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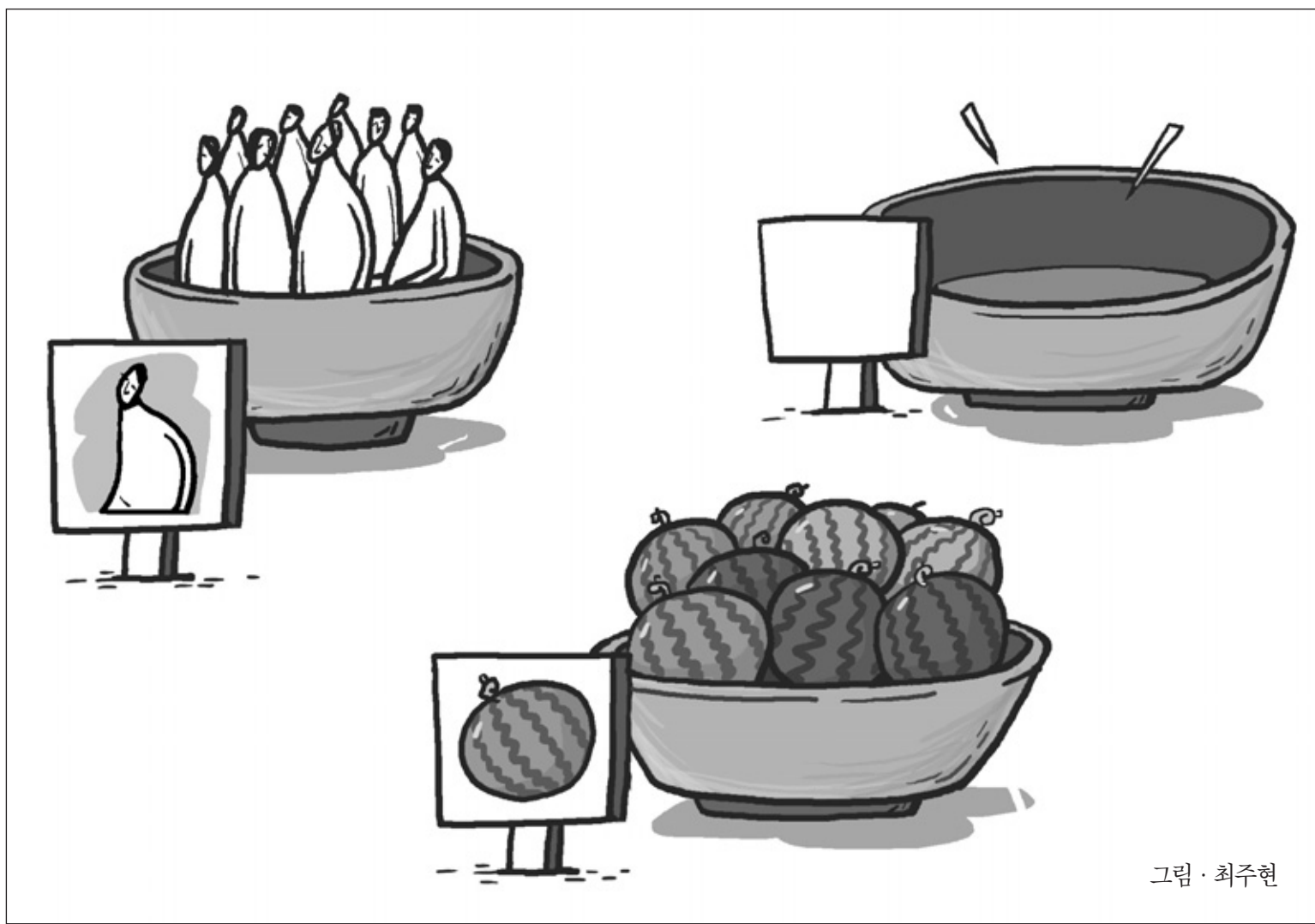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다. 그 열매 속에는 과거에 심었던 그 씨와 똑같은 씨가 바로 자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심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과거는 현실로 왔기 때문에 없고, 현실은 공해서 찰나찰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니 그것이 바로 없다고 하는 소립니다. 우리가 여기 올 때도 걷기는 걸었는데 뒷발자취를 짚어지고 오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사 것을 다 놓고 그냥 여여하게 지금 실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하나, 한 찰나를 뒤집지 못해서 고생을 하고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과거를 찾고 미래를 찾고 온통, 오늘날에도 타의에다가 내 영혼의 근본 생명을 구하고 그림니다.

여러분, 불교가 따로 있다고 분별하지 마

세요. 불(佛)은 생명이요 교(敎)는 말씀이니, 불교 따로 있고 가톨릭교 따로 있고 기독교 따로 있고 알라신교 따로 있고, 일본 불교가 따로 있고 티벳 불교가 따로 있고 통일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항아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항아리를 벗어날 수 없게끔 체가 없는 마음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바로 그 근본을 알아서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 손색이 없고 걸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몸이 움직거리지만 정신적으로 움직거리야만이 남과 나를, 전체를 이익하게 할 수 있고 모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노동이라고 하고 정신의학, 정신과학, 전체정신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문학, 지리학, 생물학 등 일체 만

가지 분야가 모두가 한마음 속에서 부풀려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분야니까 요것이 제일 좋다.' '요것이 제일 잘났다.' 하고 아만 아상 아집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한 주먹에 쥐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겠습니까?

승복이라는 것이 바로 감지도 않고 회지도 않은 그 자체의 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용! 보이지 않는 데 무(無)의 세계 50%에서 바로 유(有)의 세계 50%로 발현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세계 50%만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산다 하면 50% 무의 세계에 걸려서 자유스럽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분이나 연

세 드신 분이나, 애나 어른이나 남녀노소를 막론해 놓고, 승려든 승려가 아닌든 가톨릭 교도든 기독교도든 누구를 막론해 놓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주처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고 자기로부터 벌어진 것이니 자기부터 믿고 자기로부터 나오는 거 거기에다가 맡겨 놓을 수 있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비유해서 말을 해 본다 하더라도 각자 여러분 몸속에 16억이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억이라고 해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16억 중에서 하나의 체가 없는 마음이 한생각을 낸다면 바로 원자에서 입자로, 입자에서 분자로 화해서 수없이 안팎 경계를 도모하면서 체크해 가면서 바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묘하고 모든 것은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 한생각에 천당도 갈 수 있지만 한생각에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로만 남한테 좋은 일을 하기 보다는 마음으로써 좋은 일을 잘할 수 있다면 물질로 조금 보태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끝간 데 없는 보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옛날에는 바리때를 들고 스님네들이 공양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스님네들 올 때를 기다렸다가 나쁜 좋은, 먹을 게 없든 있든, 자기 먹는 것에서 먼저 떠서 부뚜막에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가 보니까 그날은 먹을 게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보리쌀을 씻어서 주고, 그 속살 따위를 얻어다가 푹푹 끓여서 식구가 먹기 전에 먼저 떠 놓는 마음 한 그릇을 스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난 스님은 너무나 불쌍하고 안됐어서 나무라도 한 집 지어다가 줄 양으로 나무를 하러 가서 한 집 잔뜩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고만 자기 은사한테 들었습니다. 은사 스님이 "뭐 하려고 나무를 해 가지

22면으로 계속

## 역학 수강생 모집

(서라벌대학 풍수명리학과 교수들이 직접강의)

- **육 임 학 과 정** • 초중급 완성반 : 5개월 과정 (주1회) • 담당교수 : 이우산 교수  
약 력 : 서라벌대학교 풍수명리학과 육임학 교수,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육임학 교수  
원광디지털대학교 동양학과 육임학 교수  
주요저서 : 『육임입문』, 『육임실전』, 『대육임필법부령주』, 『육임책략』, 등  
※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5일(매주 토요일) 저녁 7시~9시30분
- **기문둔갑 과정** • 초중급 완성반 : 5개월 과정 (주1회) • 담당교수 : 조영택 교수  
약 력 : 서라벌대학교 풍수명리학과 기문둔갑 교수,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기문둔갑 교수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기문둔갑 교수  
주요저서 : 『기문방문론』, 『기문초급강의』, 『기문중급 고급강의』, 『실전기문』 등  
※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1일(매주 화요일) 저녁 7시~9시30분
- **명 리 학 과 정** • 담당교수 : 정수호 교수  
약 력 : 서라벌대학 풍수명리학과 교수 (전)서울정화예술대학 외래교수  
(전)청주대학교, 경북대학교, 대구한의대 평생교육원 명리학 교수  
주요저서 : 『사주팔자진결(-)』, 『명리대전전』, 『복을 읽는 인성학』, 『수상과 손금의학』 등  
※ 기초완성반 : 5개월 과정 (매주 월요일) ※ 전문가반 : 5개월 과정 (매주 수요일)  
※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2일(수요일) 저녁 7시~10시, 3월 7일(월요일) 저녁 7시~10시
- **관상수상학 과정** (6개월과정) • 담당교수 : 정수호 교수  
※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4일(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12시 30분
- **타로카드 과정** (2개월과정) • 담당교수 : 장진산 교수  
※ 공개강의 및 개강일 3월 4일(매주 금요일) 오후 7시~10시

교육장소 : 대구시 지하철 1호선 성당역 1번출구 세종역학아카데미  
교육상담 : 정수호교수 011-246-3933 . 053-651-8596

교육과학기술부허가 공익법인 한국평생교육기구

## 보건식품처방사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 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교육과목	교육기간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 자연치유의학 · 식품영양보충학 ·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 약용식물학, 총 7개 과목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 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쇼소발표역	14주 과정 토요일 반



### 교육생 상시 모집

중 앙 교 육 원 - 홈페이지 [www.klle.or.kr](http://www.klle.or.kr)

접수처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 수납처 : 한국보건교육원 (신한은행 100-025-095930)

문 의 : Tel. 02)3147-2020

### 지부교육원

영 남 교 육 원 055-543-3155 울 산 교 육 원 052-260-1037 지 리 산 연 수 원 063-635-5112  
대 구 교 육 원 053-566-1116 호 남 교 육 원 063-288-5623 경 남 서 부 교 육 원 055-932-5877  
부 산 교 육 원 051-441-0111 전 북 익 산 교 육 원 063-854-1060 제 주 교 육 원 064-755-7588  
해 운 대 교 육 원 051-757-9990 광 주 교 육 원 062-672-5432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 소소하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21면에서 계속

고 오느냐?” 하니 “제가 이만저만해서 나무라도 해다 줄 양으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 다.” 하니 그 지저분한 뺨이 가지고 아랫도리를 그냥 능가했습니다. “이놈아! 한 생각의 무주상 보시가 있거늘 어찌 때 버리고 나면 그만인 나무 한 짐을 보시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냥 내리쳤습니다. 나무를 짊어진 채 대굴대굴 구르다가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는데 문득 생각이 났 습니다. ‘아하! 스님의 말씀이,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서 무릎을 탁 치면서, 피는 줄줄 흐르지만 너무나 상쾌해서 그때 거기에서 한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해부터 남의 마음을 얻고 남의 집을 얻고 그래서 잘살게 돼서 그 동네 일판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 합니다. 무심의 마음 한생각에 그렇게 무주상 보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니까, 나는 중생이니까, 나는 병고 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깨치지 못했으니까 못한다.’ 하면서 아무 말이나, 아무 생각이나 쪽쪽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깨쳤든 안 깨쳤든 자기가 생각을 잘하면, 자기를 다시 돌아볼 수 있고 다스려 나가는 그 마음이 진실하고 믿음이 있다면, 그 생각이 바로 그 수명통이라는 그 자체에 입력이 돼서 이 세상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괴로움이 있고 사회에서 괴로움이 있고 또는 국가적으로도 괴로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자기가 한 대로 입력이 돼서 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입력이 돼서 나오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다면 앞서 입력했던 것은 그냥 송두리째 무너지지 화탕지옥, 독사지옥, 이런 지옥이 다 무너지면 서 바로 우리는 안락한 자유인이 되는 거죠. 망상이다 뭐다 하는 것에도 걸림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작업하는 것이 바로 열반계로 드는 법이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육만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인 양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이 탄생을 해야만이 우리가 일체 만법을 정신계로 해 나갈 수 있고,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 오고 감이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 가 보면, 내일모레도 또 가야 하지만 말입니다. 각처에 지원이 있으니까 안 가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한국은 그래도 집에서 애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외국 같은 데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를 할 여유가 없고 자식과 부모가 또 그렇 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점점 점점 그렇게 여유가 없어져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자식을 좋은 뿌리, 좋은 나무의 싹으로서 좋은 열매를 열리게 하고 제 나무에서 무르익어서 만 가지 맛을 낼 수 있게끔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뿐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고 남편 뒷바라지도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고 오는 사이에 바로 뿌리가 흔들리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되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그것이 꽃이 피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향기가 나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만 가지 맛을 내니 바로 한마음으로서 서로 귀한 보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세계 어디에 있어도 능글하고 떼떽하게, 부드럽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서도 안으로는 당당하게 처리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49년을 설하셨고 예수님도 몸소 그렇게 살아가고 다니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병을 고쳐 주느라고 애쓰셨지 않 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을 고치려면 육신의 병은 저절로 나을 겁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 신다면 바로 육신의 모든 의식이 한마음으로 따라 줄 것이고, 한마음으로 따라 주니 여러분이 사회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 자기가 돼서, 모습 없는 모습으로 남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돼 가지고 일을 해 나가고, 몸으로는 부지런히 뛰고 이 령게 해서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구하려면 가만히 앉아서도 전 세계를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갈 수 있고, 볼 수 없는 데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없는 데서 들을 수 있고, 한 번 책정을 내리면 그대로 법이 되고, 한데로 떨어지지 않고 실천에 옮겨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 한 것을 우리 부처님께서 사대 성인들이

다 가르쳐 오신 것입니다. 예전에도 ‘너 마 음부터 알고 사람부터 배라.’ 하고 소크라테 스뿐만 아니라 누구누구 이름 났 것도 없이 사대 성인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파로써 전 세계에 두루 통신할 수 있고 텔 레비전으로 안방에서 세계를 볼 수 있습니 다. 그와 같이 우리의 체가 없는 마음이 일 체 우주를 손 안에 넣고, 가만히 앉아서도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누진, 즉 레이더 망으로써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의 도리는 숭상을 안 하고,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안 하고 만날 보이는 물질세계, 학 술적인 이론 또는 지식적인 문제로만 한 다 면 수박 겉 핥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만 아상 아집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한 주먹에 쥐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겠습니까!**

아는 것으로는 여러분이 나보다도 백 배 천 배 낫겠고, 그러나 실천하는 것은 어떻 습니까? 팔십 살 백 살을 먹어도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조그맣다고 버리고 크다고 갖고 이리저리 마 세요. 바로 내 몸으로부터 가정으로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우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각자가 바로 지수화풍으로 바탕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수화풍, 땅 물 불 바람 이것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종교를 만든 안 만든 자력 통신력 광력 전력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잠재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지 않고는 못 살아요. 지금 물만 없어도, 공기 바람만 없어도 우리는 모두 못 삽니다. 불이 없어도 못 살고 물이 없어도 못 살고 흙이 없어도 못 살고, 공기가 없어도 바람이 없 어도 안 되죠. 그러니만큼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면서도 이 안에 광력도 있고 자력도 있고 통신력도 있고 전력도 있습니다.

안에서 쓸 거는 안에서 쓰고 바깥에 있는

거는 끌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자력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근본인 자가발전소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못 쓸 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신통이라는 걸 맘대로 굴릴 수 있고, 그리하여 그 오신통에서, 바로 다섯 가지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누진으로 가서 사 대에 통신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흙 에도 자력이 있고 우리 인간에도 자력이 있 기 때문에 땅을 딛고 다니는 것입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숨을 쉬 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땅속에서 보물이 나오는 것도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석탄이나 기름이 나오는 것 도 그렇고요.

지금 정신계로 치닫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가 물질적으로 이론적으로만 가다가는 앞으로 닥치는 문 제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위성이 저 령을 지구 바깥으로 도는 것 도 물론 한계가 있어서 그계 달아나면 어쩔 수가 없죠. 또 딴 사람이 써도 어쩔 수가 없고요. 그러나 체가 없는 마음은 그와 같이 아닌 까닭에 그것을 가계도 오계도 할 수 있는 자력의 능 력이 얼마든지 충만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법이 따로 없다고 하는 것이 왜냐 하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이요 교는 말 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불교가 따 로 있으며 어찌 부처가 어떠한 개별적인 한 사람을 두고 한 말이겠습니까. 천체가 돌아 가는 이치, 찰나찰나 돌아가는 이치, 제자리 걸음하고 돌아가는 이치, 바로 불바퀴를 이 름해서 부처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부처요, 마음 내면 여러분이 화신이라, 육신이 움죽거 리면 바로 여러분이 법신이라, 삼위일체가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며 내면세계의 그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정립시키면서 바로 지배 인으로서 리드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신다 면, 장래에 우리나라의 경제난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전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한 주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소하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싸 우지 말고, 조그마한 것 가지고 내 종교 네

종교 따지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것도 마음 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 안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지구도 사공이 없이 돌아가고 인간도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어지고 다니는 것 하나 없이 놓고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신계를 숭상하고 능력을 기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지, 어떻게 체가 없는 마음으로 창살 없는 창살을 만들어 놓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만들니까.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 그렇게 좁아서야 어찌 이 세상을 한 주 먹으로 집어삼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나라를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사회 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내 몸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의학적으로 30%, 40%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50%의 보이지 않는 마음 에 의해서 오는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극 영계성, 세균성, 유 전성, 업보성이나 인과성,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입 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모두 무너뜨리려면 바로 내가 있으니까 모두 별 어진다는 것을 알아야죠. 내가 안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 있으니까 바로 자기 법 신이 있는 것이요, 부처가 있는 것이요, 또 화신이 있는 것이지 도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寺)만이 도량이고 가톨릭이나 기독교의 강단만이 강당이 아닙니다. 자기가 변소에 앉아 있으면 바로 자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변소 또한 도량입니다.

이 세계, 삼천대천세계의 일체를 잘 요리 해서 맛있게 먹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으 뜸가는 자유인이요 부처입니다. 바로 이 세 상에서 유의 세계 무의 세계, 죽은 사람 산 사람, 죽은 영들 산 영들을 다 한꺼번에 건 질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구 경경지에 이르러서 여러분이 바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각을 이루고 말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1년 2월 23일 국내지원법 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 마음 선원 홈페이지 (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불교용품  
불교서적  
불교달력

www.buddhashopping.com

### 동진기획 · 붓다쇼핑

☎ (051) 515-8888 대량구입시 전화주십시오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 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 농협: 121068-56-042256 [예금주: 강태규]

※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카탈로그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시 주소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바림칼라등  
30cm



연화만월등  
(한색, 분홍, 빨강, 파랑, 초록)



비단접등  
10.5cm  
12cm



연등  
활인가

- 공단등 (6cm) @2,400원(100개이상)
- 공단등 (8cm) @3,000원(96개이상)
- 공단등 (10.5cm) @5,000원(24개이상)
- 공단등 (13cm) @12,000원(12개이상)
- 공단등 (20cm) @30,000원(4개이상)
- 비닐만월등(특) @170,000원(100개)
- 영가만월등(100개) @170,000원(1Box)
- 연화만월등(100개) @240,000원(1Box)
- 전통등 (100개) @300,000원(1Box)
- 청사초롱등(100개) @250,000원(1Box)
- 비단접등(10.5cm, 12cm) @340,000원(100개)

- 바림등 (6cm) @2,400원(100개이상)
- 바림등 (8cm) @3,000원(96개이상)
- 바림등 (10.5cm) @5,000원(24개이상)
- 바림등 (13cm) @12,000원(12개이상)
- 바림등 (20cm) @30,000원(4개이상)
- 칼라바림등(30cm) / 칼라공단등(30cm)

방수전선간격 (50구)

22cm / 25cm / 30cm 50cm  
1m / 2m ※기타주문생산

전통등색상  
빨강, 파랑, 초록  
흰색, 분홍, 노랑



청사초롱



안전  
인증  
제품



연등속지백색 1목은

6cm 3,500원 / 8cm 4,000원  
10.5cm 4,500원 / 12cm 6,000원  
※1목당 100개를 만들 수 있음

집게부착PVC등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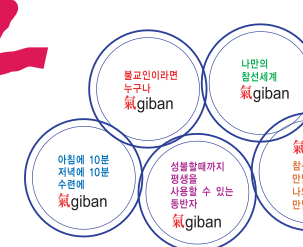
@20,000원 (100개)  
크기: 8.5x21cm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 기반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연불심! 02)2004-8216

☎ 031-9298962 (주)현대불교신문